



국내주식(ETF제외)펀드, 4개월 연속 순유입

1. 국내주식(ETF제외)펀드, 4개월 연속 순유입

- 국내주식(ETF제외)펀드가 4개월 연속 순유입. 2017년 11월~2018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4개월 연속 순유입은 처음
-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주식펀드(ETF제외)에서 환매가 줄어들고 신규 투자 증가
- 작년보다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분위기도 간접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됨

2. 색깔이 뚜렷하고 성과 좋은 펀드

- 최근 3개월 동안 자금 유입이 가장 큰 펀드는 성과가 우수한 펀드, 액티브ETF, ESG펀드, 테마펀드 등
-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테마펀드에 대한 선호가 강해짐

3. 신흥국주식펀드 순유입 전환

-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5월말부터 순유출로 돌아선 이후,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순유출 규모 증가
-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10월 중순 이후 순유입 전환.

1. 국내주식(ETF제외)펀드, 4개월 연속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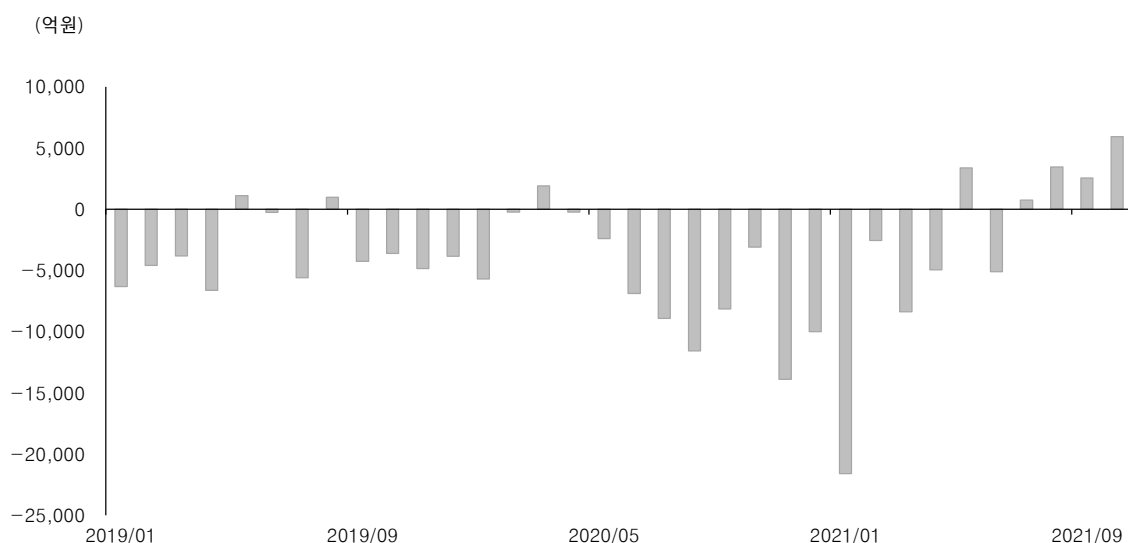
국내주식(ETF제외)펀드가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2017년 11월~2018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국내주식(ETF제외)펀드의 4개월 연속 순유입은 처음이다. 순유입 규모도 증가하면서, 국내주식(ETF제외)펀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투자자들의 사상 유례없는 직접주식투자 붐이 있었을 때도, 국내주식(ETF제외)펀드에서는 이익실현을 위한 환매가 계속 이어졌었다. 작년 9월부터 해외주식펀드는 직접투자의 경험이 간접투자자로 확대되었지만, 국내주식펀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주식펀드(ETF제외)펀드는 올해초부터 환매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5월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주식펀드(ETF제외)에서 환매가 줄어들고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보다 시장변동성이 커지고 종목선택이 어려워진 점도 투자자들이 간접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1] 국내주식(ETF제외)펀드, 4개월 연속 순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색깔이 뚜렷하고 성과 좋은 펀드

국내주식 액티브 유형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액티브일반, 섹터, 테마 유형으로는 자금이 유입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형 펀드도 4분기부터 자금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자금 유입이 가장 큰 펀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과가 우수한 펀드, 액티브ETF, ESG펀드, 테마펀드 유형의 펀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배당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배당주펀드도 자금 유입 상위 15개 펀드 중에서 2개가 포함이 되었다. ESG와 관련된 펀드는 15개 중에서 4개이고, 액티브ETF는 5개가 포함되었다.

전통적으로 특정 영역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일반적인 액티브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자들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테마펀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역(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브릭스 펀드 등)이나, 투자범위(섹터펀드)를 정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로 2차전지, 모빌리티, 플랫폼 등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자금유입 Top 국내주식액티브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유형	순자산	자금유출입	수익률		설정일
				1개월	1년	
KTBBIP 스타셀렉션	액티브일반	2,616	1,577	0.4	69.1	2009-07-20
한화 ARIRANGESG 가치주액티브	액티브일반	1,253	1,198	-3.0		2021-07-29
마이다스책임투자	테마	7,257	783	-2.8	37.7	2009-04-21
타임폴리오마켓리더	액티브일반	1,546	695	-0.6		2020-12-02
한화 ARIRANGESG 성장주액티브	액티브일반	619	538	-0.9		2021-07-29
KB 주주가치포커스	액티브일반	1,183	303	-1.0	44.8	2018-03-12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액티브일반	2,714	281	0.9	56.4	2008-07-08
미래에셋코어테크	섹터	5,762	275	-1.8	49.6	2019-10-21
키움차세대모빌리티	테마	1,640	231	0.0	46.6	2011-05-24
현대 M 멀티-헤지코스닥벤처	중소형	518	227	-0.6		2021-01-04
타임폴리오 TIMEFOLIOKstock 액티브	액티브일반	504	174	3.2		2021-05-24
브이아이 FOCUS 혁신기업액티브	액티브일반	135	137	-2.1		2021-09-29
삼성배당주장기	배당	954	127	-2.8	47.0	2005-05-10
마이다스마이다스 KoreaStock 액티브	액티브일반	107	105			2021-10-12
베어링고배당	배당	2,542	92	-2.9	38.2	2016-08-29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1월 1일 영업일 기준

3. 신흥국주식펀드 순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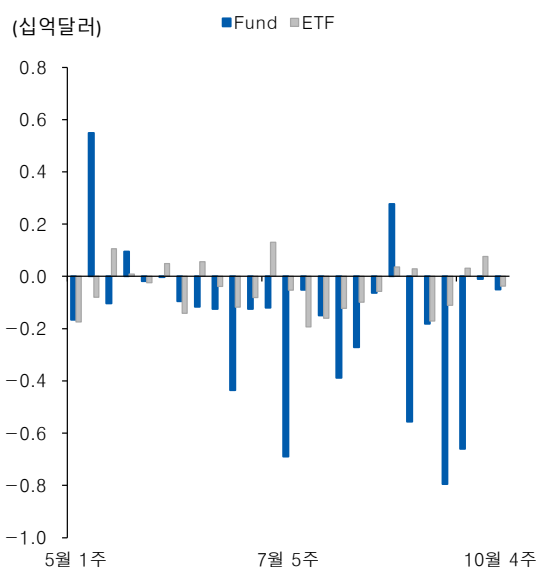
델타변이 확산 이후, 글로벌투자자들은 백신 접종율이 낮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5월말부터 순유출로 돌아선 이후,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순유출 규모가 늘어났다.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달리 하반기에도 꾸준히 순유입을 이어갔다.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9월~10월 순유출되기도 했으나, 10월 중순 이후로는 순유입 전환한 상태이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미국주식ETF는 꾸준한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미국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미국주식ETF로 유입되는 규모가 더 크다. 미국도 테마펀드 등 다양한 ETF가 만들어지면서, ETF 시장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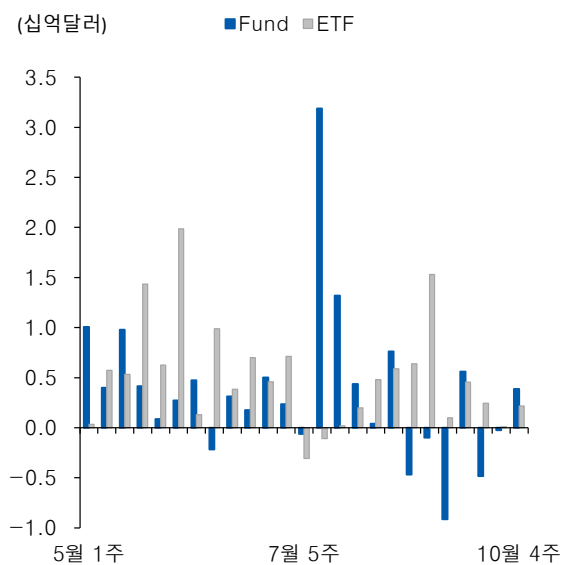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 등이 생기면서, 유럽과 일본 주식펀드와 ETF는 유출입이 반복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주식ETF를 제외한 주식펀드 유형은 당분간 불안한 펀드 플로우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차트2]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이어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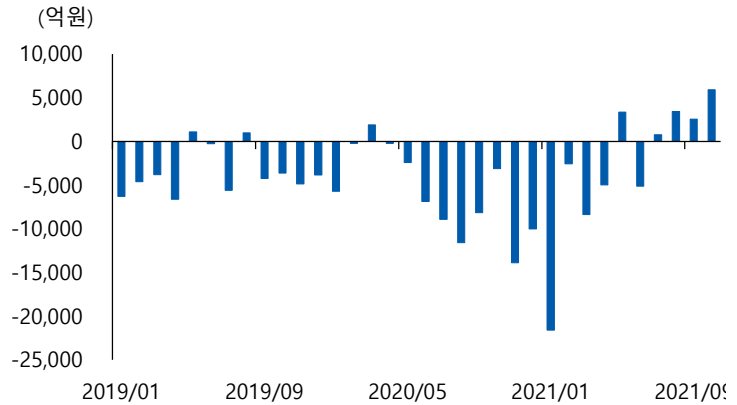
[차트3]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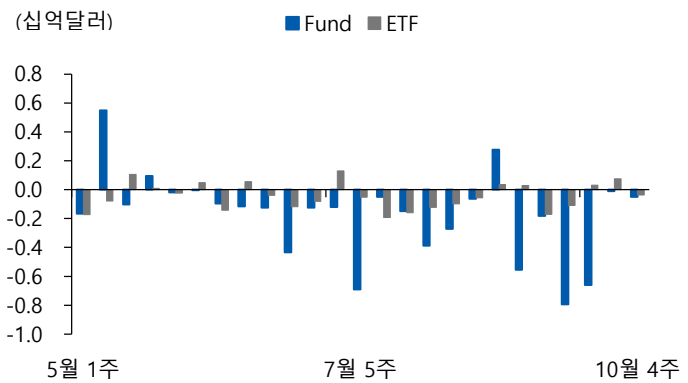
Key Chart

국내주식(ETF제외)펀드, 4개월 연속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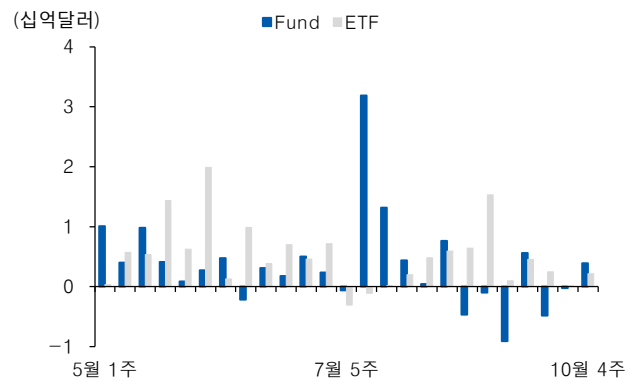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이어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용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입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